



거센 파도 헤치고...

세계에서 가장 힘든 요트 대회 중 하나인 제 66회 시드니~호바트 요트경기에 참가한 호주의 '쇼군'호가 29일 거센 파도를 헤치고 결승선인 호바트 태즈매니아섬을 향해 항해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사조’ 상무 농구대잔치 3연패

건국대 73대 68로 꺾어
최우수 선수에 양희종

‘불사조’ 상무(국군체육부대)가 농구대잔치에서 3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훈재 감독이 이끄는 상무는 29일 안양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10 농구대잔치 마지막 날 남자부 결승에서 합지훈(28점·15리바운드)의 활약에 힘입어 건국대를 73-68로 물리치고 우승했다. 상무는 대학 5개 팀만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4전 전승을 거두며 2008년부터 3년 연속 우승컵을 들었다. 1984년 1월에 창설된 농구대잔치 역사상 3연패를 거둔 팀은 상무가 유일하다. 상무는 1쿼터를 12점차로 앞섰지만 합지훈이 빠진 2쿼터에서 단 6득점에 그쳐 오히려 35-40으로 뒤집힌 채 전반을 마쳤다.

2m가 넘는 이대혁(14점)과 최부경(14점)의 ‘높이’를 앞세운 건국대는 2쿼터에만 무려 23점을 몰아치며 상무를 구석으로 내몰았다. 하지만 상무엔 프로농구 최우수선수(MVP) 경력의 합지훈이 있었다. 3쿼터부터 다시 코트에 오른 합지훈은 골밑을 장악하며 13점을 꽂아 넣어 다시 분위기를 상무 쪽으로 되찾아 왔다. 반면 건국대는 바쁜 마음에 성급한 공격을 추구하다 잇단 실책을 범해 역전을 허용했다. 58-56으로 다시 한 발짝 앞선 상무는 4쿼터 시작과 함께 전정규가 2점슛을 꽂고 가드 이현민의 빠른 공격에 이은 합지훈의 골밑슛으로 9점차까지 도망가며 승리를 굳혔다. 한편 이날 18점을 보태며 상무의 우승을 거둔 양희종은 남자부 최우수선수로 뽑혔다. 여자부에선 김현시팀을 우승으로 이끈 한서윤이 선정됐다. /연합뉴스

‘거포’ 문성민 데뷔전서 19점 폭발

공격 성공률 65% 자랑
현대 5연승... 우승 시동

최강 전력을 갖추고도 출발이 불안했던 남자 프로배구 현대캐피탈이 우승 후보다운 위용을 서서히 드러내며 다른 팀에 공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첫 두 경기를 내주면서 2010-2011 V리그를 시작한 현대캐피탈은 1라운드 남은 4경기를 모조리 승리하며 상승세를 타더니 28일 상대하기에 까다로운 우리캐피탈마저 3-0으로 완파했다. 5연승을 달린 2위 현대캐피탈은 5승2패를 기록해 7연승 행진 중인 대한항공의 선두 독주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전력의 최대치를 가동하며 선두를 지키고 있다면 주춤하던 현대캐피탈은 경기를 거듭하면서 승점차를 벌여 나간다는 점에서 더욱 위력적이다. 특히 현대캐피탈의 화력이 2라운드 들어서 눈에 띄게 나아진 것은 ‘문성민 효과’ 덕분이다. 신인 드래프트 관련 징계 탓에 1라운드를 뛰지 못했던 문성민(24)은 28일 V리그 데뷔전이었던 우리캐피탈과 경기부터 코트를 누렸다. 문성민은 1라운드 출장정지 징계를 받은 실음을 풀어내듯 외국인 선수 헛터 소토(32·21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9점을 작성하며 화려하게 신고식을 치렀다. 아울러 65.38%의 무시무시한 공격 성공률을 자랑하며 장신의 우리캐피탈 블로킹 벽을 농락했다. 문성민의 가세로 현대캐피탈의 공격 루트는 훨씬 다양해지면서 강력해졌다. 레프트와 라이트를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문성민과 소토가 상봉에 따라 어디에서라도 볼을 뿜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박주영 빠진자리 지동원 나서나

〈전남 드래곤즈〉

조광래호, 오늘 시리아 상대 평가전서 실험
박지성 멀티 활용... 손흥민 A매치 첫 데뷔

51년 만에 아시안컵 축구대회 정상 도전에 나선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복병 시리아를 상대로 첫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경기의 핵심은 ‘박지성 시프트’다. 조광래(56)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30일(한국시간) 오후 6시50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바니야스 클럽 스타디움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07위인 시리아(KBS2 생중계)와 맞붙는다. 대표팀은 아시안컵에 앞서 다음달 4일 아랍에미리트(UAE) 프로축구팀 알 자지라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다. 이번 시리아 평가전은 올해 대표팀의 마지막 A매치다. 아시안컵을 앞둔 한국의 첫 평가전 상대인 시리아는 2011년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해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요르

단과 함께 B조에서 싸운다. 한국은 그동안 시리아와 다섯 차례 만나 2승2무1패로 전적에서는 앞서지만 최근 두 경기에서는 무승부에 그쳤다. 이번 시리아 평가전의 핵심은 ‘박지성 시프트’다. 애초 박주영(AS모나코)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활용하려던 조광래 감독의 구상이 박주영의 무릎 부상으로 무산되면서 측면 전문 요원인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을 처진 스트라이커 겸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방법이 대안으로 떠올랐다. 조광래 감독은 지난 26일 인천공항에서 “박지성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이동해 A매치 경험이 부족한 최정환 공격수의 배후를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김보경(세레소 오사카)과 이창용(수원)이 중원을 지킨 가

“박지성 자리에는 염기훈(수원)과 손흥민(함부르크) 등 측면 자원이 많다”고 말했다. 박지성 역시 소속팀인 맨유에서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맡으면서 좋은 활약을 펼쳐 영국 언론으로부터 ‘센트럴 파크(Central Park)’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또 허정무 감독도 지난 2008년부터 박지성을 중앙 미드필더로 활용하는 ‘박지성 시프트’를 탄력적으로 사용하면서 박지성의 멀티 기능을 적극 활용해왔다. 조광래 감독은 지난 28일 박지성과 이창용(불턴), 기성용, 차두리(이상 셀틱) 등 해외 선수들이 모두 합류한 가운데 첫 전술 훈련을 치르면서 박지성을 처진 스트라이커로 세워 ‘박지성 시프트’를 가동했다. 196cm의 최장신 공격수 김신욱(울산)을 원톱 스트라이커로 세운 조 감독은 박지성을 바로 밑에 포진하고, 좌우 측면에 김보경(세레소 오사카)과 이창용을 배치하는 공격진을 구성했다. 기성용과 이문재(수원)가 중원을 지킨 가

한국팀 예상 선발라인업



운데 이영표(알 힐랄)-이정수-조용형-최요진이 포백(4-back)을 맡았다. 이문재는 제주도 전지훈련에서는 왼쪽 풀백을 맡았지만 경남 시절에는 중앙 수비수를 맡는 등 수비수 자리에서는 멀티플레이 역할을 맡고 있다. 한편, 1960년 이후 51년 만에 정상 탈환에 도전하는 한국은 ‘왕의 귀환, 아시아의 자존심!(Return of the King, Pride of Asia!)’이라는 슬로건을 선수단 버스에 새겼다. /연합뉴스

Shin Yang Park Hotel

"고객을 위한 세심한 배려"

쌀쌀한 겨울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신양파크호텔" 객실 패키지

신양파크 호텔 객실 패키지	
스탠다드 객실(1실) + 사우나 1인	₩ 90,000
스탠다드 객실(1실) + 조식 1인 + 사우나 1인	₩ 100,000
스탠다드 객실(1실) + 조식 2인 + 사우나 2인	₩ 110,000

행사기간 | 2010년 12월 1일 ~ 2011년 2월 28일 | 상담 및 문의 | 062)228-8000, 221-4101~3

2011 Wedding Festival

1,2,3월 웨딩을 준비하시는 신랑, 신부님께 드리는 신양파크호텔 만의 선물에 예비신랑, 신부님을 초대합니다.

Special Rate

뷔페	₩ 29,000	₩ 33,000
양식	₩ 33,000	₩ 35,000

스프+샐러드+스테이크(안심)
+디저트+커피

에피타이저+스프+샐러드
+스테이크(안심)+디저트+커피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